

중국어 능원동사의 인지과정 분석*

김 정 필**

<目次>

I. 서 언	IV. 의미의 인지해석과 주관화
II. 품사의 범주화와 인지과정	V. 결 어
III. 서술성의 인지기제와 어법화	

I. 서 언

최근 인지어법에서는 기존의 언어연구에서 부차성분이란 명목으로 구문 분석에서 배제되었던 수식어나 다양한 어법성분, 특히 전치사, 조사 등 허사성분에 대한 연구에 초점이 주어지고 있다. 이러한 어법분석에 대한 연구초점의 변화는 아마도 기존의 실사 중심의 연구와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그 범주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의 어법분석에서 탄생했던 또 하나의 과도적 품사가 존재하는데, 바로 보조(補助)의 의미를 나타내는 助(ad-)'나, 부차(副次)의 '부(副:ad)-'가 부가된 조동사와 부사가 있다. 그 중 '조동사'에 대한 범주화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중국어에서는 '능원동사(能愿动词)'의 명칭 변화는 '조동사'의 원형모형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인지어법의 발달과 더불어 양태(modality), 서법(mood) 등 의미영역(meaning

* 이 연구는 2010년도 경상대학교 학술진흥지원사업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RPP-2010-021).

** 경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domain)의 확대를 통한 ‘능원동사’에 대한 새로운 각도의 의미 분석이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의미해석에 대한 방식이나 기준의 통일에 대한 과제¹⁾가 존재하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어 능원동사에 대한 범주화 과정은 여전히 구문분석에서 의미범주를 찾고 있으며, 능원동사의 품사적 독립성이나 문장성분으로서의 역할 또한 명확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왜 이러한 과도적 품사가 생겨났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고 판단되며, 이러한 과정에 대한 규명의 방법론으로 인지어법의 인지과정(cognitive process)²⁾의 분석 기제를 활용해 보고자 한다. ‘인지과정’은 ‘발화과정에서 존재하는 시점, 선택, 자세, 경험, 기대, 기억, 평가 등 다양한 인지기제를 의미적 서술내용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품사의 범주화나 기능 분류, 의미범주의 설정 등을 결정하는 분류자의 인지적 양상을 파악하거나

- 1) 예를 들면, 许和平(1991)은 ‘양태동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중국어의 대다수 양태동사는 동사의 앞에 쓰이지만, 일부 양태동사는 문장의 앞이나 문장의 끝에 쓰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단독으로 쓰일 수도 있다는 사실로 양태의 범주를 확대하였으며, 심지어 동사를 보조하는 동사성 성분을 모두 ‘조동사’라는 각도에서 파악하고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만약 ‘可能’, ‘应该’, ‘愿意’, ‘会’를 ‘조동사’로 규정할 수 있다면, 진정으로 조동사역할을 하는 ‘了’, ‘着’, ‘过’도 ‘조동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능원동사’라는 명칭 또한 단지 ‘능력’과 ‘염원’ 등 객관적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로만 인식하고 ‘인지’와 같은 주관적 의미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능원동사’의 명칭도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 2) 본래 심리학적 개념에서의 인지과정(cognitive process)은 ‘사물을 기존의 지식이나 경험에 관련시키거나 지각된 것을 이해하여 사물을 지각하는 심리적 과정’으로, 개인이 그 주변 환경을 해석하는 인지, 지각, 판단 등의 심리적 과정을 가리킨다. 이러한 심리과정에 근거한 언어의 인지과정에 대한 이해는 ‘개념 주체가 지각된 사태를 이해하여 해석하고, (그것을 다시) 분절·구조화하고 코드화(encode)함으로써 행동이나 발화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며,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선택적으로 ‘의미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능동적인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인지과정의 분석에서 말하는 ‘의미 있는’ 것은 발화과정에서 존재하는 시점, 선택, 자세, 경험, 기대, 기억, 평가 등 다양한 인지기제를 의미적 서술내용으로 파악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임지룡 등 옮김, 《인지언어학 키워드 사전》, 한국문화사, 2004, 172쪽. 본문 내용의 문장이 어색하여 약간의 첨삭을 가하였다.

기준을 설정하는 중요한 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능원동사의 범주화나 기능에 대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보다는, 능원동사의 품사성과 기존의 기능분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인지적 접근법을 통해 규명해 보려는데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주요 분석과정은 대표적 인지과정인 범주화, 어법화, 주관화와 능원동사의 품사성, 기능성, 의미성의 세 가지 경향성을 상호 연계시켜 고찰해 나간다. 먼저 다양한 의미영역으로 구분되고 있는 능원동사의 의미정보를 ‘能’과 ‘愿’으로 대별하여 ‘가능성(能)’과 ‘기대성(愿)’의 두 가지 경향성으로 귀납하여 범주화를 실현하고 한다. 둘째, 정보의 객관성과 주관성의 이분법에 근거하여 ‘구문(sentence)’이 전달하는 의미정보를 명제중심의 ‘사건정보’와 화자중심의 ‘심리정보(이하 ‘화자정보’라 지칭한다)’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심리정보’를 통해 드러나는 능원동사의 서술성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셋째, 능원동사의 주관성 표현을 어법화가 아닌 탈어법화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능원동사의 기능을 ‘화자의 주체적인 판단활동’이란 서술성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II. 품사의 범주화와 인지과정

범주(category)는 우리에게 유의미적이고 관련된 유사한 경험의 집합을 개념화한 것으로, 범주화(categorisation)는 이러한 생태체계 안에서 범주들을 확립하는 과정을 의미한다.³⁾ 인지언어학에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지과정으로 사물을 분류하는 인간의 능력으로 파악하며,⁴⁾ 대개 품사의 분류나 문장성분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인지적 능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 즉 능원동사를 하나의 독립된 범주로 귀납하기 위해서는 능원동사와 다른 품사들 사이의 구별성 특징을 찾아 능원동사의

3) Günter Radden·René Dirven 지음, 임지룡·윤희수 옮김, 《인지문법론》, 박이정, 2009, 27-30쪽. 참고.

4) 김동환(2005), 《인지언어학과 의미》, 태학사, 531쪽.

원형 모형을 파악하는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구별성 특징이나 원형모형을 통한 가족닮음으로서의 구성원들을 재분류하는 과정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능원동사는 어떠한 구별성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과연 어떠한 원형모형으로 귀납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자. 우선 동사분류를 비교적 상세하게 분류한 李英哲 등(1990)은 동사유형을 크게 동작동사, 상태동사(비동작동사)로 양분(二分)하고, 다시 상태동사의 하위부류를 성질동사, 상태동사, 명명(지칭)동사, 정감동사, ‘有’동사, 조동사(능원동사) 등의 6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⁵⁾ 상태동사의 하위부류인 조동사를 능원동사로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능원동사는 여타 동사들처럼 나름의 독립된 의미범주가 드러나지 않고 ‘助’라는 기능적 특징만 부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의 연구에서 능원동사의 의미범주는 ‘양태’나 ‘서법’, 그리고 중국어에서는 ‘情态’의 의미영역으로 귀속시키고 있는데, 위의 동사분류에서 나타나는 ‘정감동사⁶⁾’와 그 차이점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1) 她想你不会回来。
- (2) 她希望你不会回来。
- (3) 她说你不会回来。
- (4) 我以为她不会回来。
- (5) 她问我你不会回来。

일반적으로 능원동사의 기능은 소위 ‘중심술어’로 명명되는 ‘동작행위동사’가 표시하는 행위 및 동작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다고 정의되어, 오히려 의미론적 설명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순수한 기능론적

5) 李英哲 등, 《实用汉语参考语法》北京語言學院出版社, 1990, 114-130쪽 참조. 형용사가 성질동사로, ‘是’가 명명동사로 귀납되어 있으며, ‘有’가 독립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6) 한국어에서는 ‘감정동사’로 분류되지만,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위의 예문에서 명사구가 아닌 종속절을 목적어로 대동한 위의 예문에서 발화동사, 심리동사 등과 그다지 큰 차이를 발견할 수는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국어 ‘능원동사’의 어법기능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능원동사’ 이전의 명칭인 ‘조동사’의 어법기능에 대한 정의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조동사’는 명칭 그대로 구문에서 동사(정확하게 말하면, 주요술어 혹은 중심술어)보조한다고 정의되지만, 여전히 ‘조+동사’인지 ‘조동+사’인지에 대한 구문성분으로서 명확한 기능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즉 능원동사를 독립된 구문성분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의 여부, 즉 부사어인지 (보조)술어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실사와 허사를 판단하는 기준인 의미의 구체성에 근거한 능원동사의 어휘적 특징은 허사로 분류되었지만, 능원동사는 전형적인 허사인 조사나 접사 등과는 달리 단독으로 통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⁷⁾ 하지만, 능원동사는 심리동사와도 의미적 특징이나 어법적 특징에서 따로 분류가 되지만, 여전히 그 경계가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능원동사가 의미의 구체성 여부나 어법기능에 대한 명확한 범주를 설정하지 못하고 논란의 대상이 된 주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품사분류는 어법기능을 주요 기준으로 분류되었지만, 여전히 의미를 동시에 고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을 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능원동사의 원형모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조동사’ 명칭에 의거한 분석⁸⁾이나 ‘보조술어’라는 문장기능에 의한 논의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허사의 각도에서 분석하면, 근본적으로 문장성분이 될 수 없으며, 동사범주의 하위부류로 실사로 귀납하더라도, 단순히 ‘보조술어’라는 어법기능으로는 독립된 문장성분으로

7) 이것은 중국어의 ‘想’이 조동사도 되고, 심리동사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을 증명된다.

8) ‘조동사’의 명칭을 가지고 ‘조+동사’의 어법기능을 지닌 동사성의 실사인가 아니면, ‘조동+사’의 성격을 지닌 부사성의 허사인가를 규명하려고 한 것.

정의할 수는 없다.⁹⁾

우선 현재 중국이나 한국에서 발행되어 중국어 회화교재로 활용되고 있는 어법교과서의 능원동사의 의미영역은 ‘가능, 능력, 허가, 의지, 평가 개연성 등’의 다양한 의미범주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의미항의 선택은 중국어 학습자에게 의미해석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능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能’은 능력과 가능성으로, ‘可以’는 ‘허가’와 ‘평가’로 분석되고 있으며, ‘會’ 또한 ‘가능’과 ‘개연성’으로 의미 분류가 되고 있다. 또 ‘기대성’을 나타내는 ‘要’ 또한 ‘의욕, 의지’와 ‘개연성’ 등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주관성 정도에 따른 세분화된 분석은 두 의미영역 간의 구분이 모호하게 하고 있다.

- | | |
|----------------|------|
| (6) a. 我能看中文报。 | -능력 |
| b. 她今天能来吗? | -가능성 |
| (7) a. 我会开汽车了。 | -능력 |
| b. 今天不会下雨。 | -개연성 |
| (8) a. 我要买啤酒。 | -의욕 |
| b. 今天要下雨。 | -개연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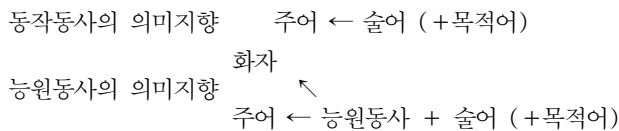
예문(6a)와 예문(7a)에서 ‘能’과 ‘會’가 모두 주어의 ‘능력’을 전제로 하여 ‘할 수 있다’로 해석되지만, 능원동사의 의미지향은 주어를 지향한다. 하지만, 예문(6b)와 예문(7b)에서 나타내는 ‘가능성’과 ‘개연성’은 화자의 판단을 전제로 하며, 능원동사의 의미지향은 주어가 아닌 화자로 지향하고 있다.¹⁰⁾ 즉 위의 두 의미해석 차이에는 능원동사와 연관된 의미지향의 주체가 서로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의미지향의 일관성의 각도에서 동일한 주체로 의미지향을 한다면, 모두가 ‘능력’을 전제한 ‘가능성’으로 귀결될 수 있다. 즉 화자의 판단이라는 각도에서 접근해 보면, 예

9) 물론 능원동사의 ‘보조술어’라는 문장성분으로서의 기능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능원동사에 대한 기존 학자들이 주장에 대해서는 박영록(2005) 참조.

10) 相原茂 등 저, 박귀진 등 역, 《중국어문법책》, 다락원, 2001, 152-154쪽 참조.

문(6)a, b의 ‘能’이 가리키는 내용은 모두 ‘가능성’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다만 시간적, 공간적 가능성과 개인의 능력 등 다양한 조건에 따른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연설명을 하자면, a에서 ‘能’의 판단은 개인의 능력에 근거한 객관적인 가능성으로 표출됨으로써, 주어의 능력에 초점이 주어짐으로써 ‘능력’으로 의미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b의 ‘能’은 시공간적 조건이나 기타의 외부적 조건에 따른 가능성을 표시함으로써, 주어의 능력보다는 화자의 판단에 초점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즉 a는 ‘능력’을 전제하고 있으며, b는 시공간적 조건이나 주체 의지에 따른 한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예문(2)a, b의 ‘要’는 또한 모두 ‘기대성’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a의 ‘要’가 화자(주어)의 심리적 욕구를 ‘기대’로 표현한다면, b의 ‘要’는 인식을 통한 ‘추측’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사실 위의 예문에서 ‘能、會、要’의 의미를 구문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 영역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능원동사가 구문에서 나타내는 의미지향을 다르게 파악했기 때문이다.



본래의 의미인 ‘능력’, ‘의욕’은 주어를 지향하지만, ‘개연성’은 화자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장성분의 상호 의미관계에서 그들이 관계하는 주체가 서로 다르게 나타남으로, 해석상의 기준에서 요구하는 일관성을 상실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어 어법연구가 시작된 이래로 능원동사의 의미유형은 개별 어휘들의 다양한 의미영역이 존재에도 불구하고 크게 ‘能’과 ‘愿’의 두 가지 의미영역으로 구분되어 왔으며, 高名凱(1957)의 ‘欲词’와 ‘能词’로 구분¹¹⁾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그 이후, 趙元任(1968)은 ‘能’의 의미를 ‘能夠’와 ‘可

이' 두 가지로 구분함으로써 의미영역이 확대되었으며, 呂叔湘(1980)에 이르러서는 '能'의 의미항목을 6가지로, '會'의 의미항목을 3가지로 확대 분석하였다. 최근에는 서구의 이론에 근거하여 4개의 의미항목으로 구분되는 추세에 있는데, 周小兵(1989)은 일반 언어이론에 근거하여, '能'을 네 가지 의미항목 '能1'(능력), '能2'(조건/용도), '能3'(허가), '能4'(가능성)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민성아(2009) 또한 Sweetser(1990)가 구분한 세 가지의 의미영역¹²⁾에 '감정영역'을 추가하여, '能'의 의미영역을 내용, 인식, 감정, 화행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9) 平儿挨着他坐了下来, 她能闻到他的味儿。

(10) 你一定能成的。

(11) 圓圓你能不能小点声, 我这写总结呢, 有写错一字。

(12) 很高兴能认识你。

민성아(2009)의 의미분류의 특징은 통사구조와 화용적 특징을 혼합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위의 예문(9)–(12)는 차례로 내용영역, 인식영역, 화행영역, 감정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의 근거는 '能'의 어법기능이나 의미관계보다는 '사건정보' 속에 드러나는 화용의미에 더 연관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예문(12)의 '감정영역'의 '能'이 표현하는 '당신을 알게 된' 것은 사실은 여전히 '사실 행위'에 근거한 객관적 사실이며, '감정' 표현의 실제적 근거는 오히려 '很高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동일한 술어 '认识'를 만나는 아래의 예문

11) 高名凱(1957)는 능원동사의 기능을 '表意를 표현하는 语法成分'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의미기준은 최근 '양태'나 '서법'의 의미범주에 어기범주를 포함하는 것과 같이, 그의 '表意'가 지니는 의미범주 또한 심리동사인 '希望'까지 '欲词'에 포함될 정도로 그 영역이 확대되어 있다. 高名凱, <汉语之表意语法> (1947), 《高名凱语言学论文集》, 商务印书馆, 1990, 117쪽 참조.

12) Sweetser(1990)에서는 내용영역(실재능력), 인식능력, 화행능력으로 구분하였다. 민성아, <'能'의 네 가지 의미영역>, 《中國語文學誌》 29, 2009, 141쪽 참조.

에서는 오히려 ‘내용영역’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의 문제점은 ‘能’의 어휘적 특징을 문장관계에서 드러나는 화용의 미나 주관성을 어휘적 의미내용으로 유추하여 분류한 것이 아닌가 한다.

(13) (你)还能认识我吗?

(14) 他还能认识我吗?

(15) 我还能认识你。

만약 위의 예문과 같이 주어의 인칭이 다를 경우에도 과연 동일한 내용 영역의 의미를 나타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위의 예문에서 ‘能’을 모두 술어 ‘认识’에 대한 ‘보조술어’의 역할로 규정할 경우, 구문에서 나타내는 통사적 차이나 어휘의미를 근거로 하는 객관적 의미를 통해서도 그 차이를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화용적 차이에 따른 의미영역의 분류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동일 낱말을 동일한 의미영역으로 귀납하는 것을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III. 서술성의 인지기제와 어법화

중국어에서 능원동사의 어법기능과 범주화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이래로, 대개 능원동사가 가지는 의미의 추상성에 근거하여 ‘부사어’와 허사로 귀납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방면에서는 능원동사는 그 기능의 측면에서 부사어와는 다른 서술성을 언급한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¹³⁾ 특히 李临定(1983)은 능원동사를 ‘전술어(前谓语), 능원동사 뒤에 위치한 동사를 ‘후술어(后谓语)’로 귀납하고 있다.¹⁴⁾ 이처럼 능원동사는 그

13) 부사어 관련 주장에 관해서는 박영록, <중국어 조동사의 범위와 기능>, 《중국언어연구》 22, 77-115쪽 참조.

14) 李临定(1983)에서는 “조동사의 동태적 특징만으로 판단술어문을 증명할 수 없

나름대로의 서술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어, 본 절에서는 술어의 ‘동태성’에 근거하여, 능원동사의 서술성에 초점을 두어 고찰해 나가고자 한다.

능원동사의 동태성은 최근의 ‘서법’이나 ‘양태’ 범주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 또한 인지적 접근방법을 통한 ‘주관성’과 연관시켜 볼 수 있다. 비록 ‘주관성’ 범주가 그 의미영역이 너무 확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양태’나 ‘서법’ 등의 범주는 ‘어기’ 또한 ‘주관성’의 의미범주에서 파악할 수 있으리라 본다. 물론 인지어법에서는 ‘주관화’를 어법화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능원동사 연구 또한 어법화의 범주에서 연구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만약 능원동사의 어휘는 허사범주로 귀납하면서도 오히려 독립된 문장성분으로 파악한다면, 이것은 어법화라기보다는 탈어법화의 현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영어와 같은 서구어에서 나타나는 ‘조동사(능원동사)’의 ‘인칭’ 및 ‘시제일치’ 등의 현상은 이러한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방증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필자는 능원동사가 구문에서 하는 서술적 기능은 사건정보 내의 실제적 행위(actual)를 사건정보에 대한 화자의 주시, 판단, 예측 등의 인지과정을 통해 비실제적(unacted) 행위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즉, 능원동사의 분석에서 ‘양태’의 개념을 통해 접근하는 판단술어의 개념으로 접근하곤 간에, 여전히 ‘주관성’의 정도차이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명확한 경계를 구하기 힘들다. 이러한 정도성의 차이는 동작, 행위, 심리 등으로 분류되는 동사의 하위분류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다만, 능원동사(조동사) 실제적 행위(actual)가 아닌 문장의 사건정보에 관여하는 화자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심리동사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능원동사의 특징은 사건내용 속의 실제

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후술어의 동태성(어법기능상의 변화)으로 인해 조동사(조동사)의 동태성이 상당히 모호해진 경우로 ‘심리동사술어문’으로 귀납하기 어려운 통사구조가 있다”고 하였다. 다만, 그는 능원동사가 판단술어가 되는 이유를 ‘동태성의 모호성’에서 찾고 있다. 李臨定, <判斷“双谓句”>, 《语法研究和探索》1, 北京大学出版社, 1983, 29-31쪽 참조.

적 행위동작을 비실제적(unacted) 혹은 비실현적 행위로 제약한다는 점이 더 중요한 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6) I want to go to Europe.

(17) 나는 유럽을 여행하고 싶다.

(18) 我很想去欧洲旅行。

예문(16)의 예문에서 시제나 인칭 등의 어법적 제약을 받고 있는 성분은 심리동사 'want'이며, 동작동사 'go'는 원형으로 환원된다는 점이 그것을 증명한다. 예문(17)의 한국어에서도 사실 서술어는 '가다'가 아니라 '~(하고)싶다.'임을 알 수 있다. 즉, 동작동사인 '가다'는 부사형의 '가고'로 변형되고, 서술형 종결어미 '~다'는 심리동사인 '싶다'에 붙어 마무리를 하고 있다. 사실 중국어에서 부사어 '很'의 수식을 받는 술어 또한 '想'이며, '去'는 영어의 'go'처럼 원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很'은 조동사 '想'을 수식하고, 다시 '去'를 수식한다고 하지만, 정도성을 가진 부사어가 동작동사 '去'를 수식한다는 점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예문(18)의 술어는 '想'이며, '去欧洲'는 동사구로서 '想'의 목적어로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부정사의 부정범위는 중심어가 서술어인지 아니면, 부정접두어로서 형태소인지를 결정하는 주요한 근거가 된다.

(19) I won't to go such places again.

(20) 나는 두 번 다시 그런 곳에는 가지 않겠다.

(21) 我不要去那樣的地方。

위의 세 예문에서 만약 부정사가 동작동사를 부정하여 영어의 'go not', 한국어의 '가지 않다', 중국어의 '不去' 등으로의 교체가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사건 전체의 내용에는 큰 차이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그러나 부정사가 제약하는 부정초점과 부정범위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으며, 화자가 본

래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 다시 중국어의 이중부정을 통해 능원동사의 서술성을 검증해 보자.

- | | |
|--------------|-----------------|
| (22) 我不想去。 | 나는 가고 싶지 않다. |
| (23) ?我想不去。 | 나는 아니 갈 생각이다. |
| (24) ?我不想不去。 | 나는 안가고 싶지는 않다. |
| (25) 我不得不去。 | 나는 가지 않으면 안 된다. |

위에 주어진 예문들의 번역에서 보다시피, “아니 가고 싶다.”나 “가고 싶지 않다.”는 의미의 초점이 다르다. 즉 부정의 초점은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로 번역하든, ‘안 가는 것을 원한다.’로 번역하든 간에 여전히 ‘不’의 부정초점은 ‘想’이지, “가지 아니한다.”처럼 동작행위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비록 한국어에서는 예문(22)를 “아니 가고 싶다.”로 번역될 수는 있지만, ‘不’의 부정초점은 ‘去’가 되어 ‘不’의 부정범위는 완전히 다르다. 예문(24)에는 두 개의 ‘不’가 존재하는데, ‘不想’과 ‘不去’ 중 어느 쪽이 주절로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 즉 구문 전체의 부정을 주도하는 부정사가 ‘不1’인가 ‘不2’인가에 따라 부정범위는 달라진다. 만약 ‘去’를 주요동사로 본다면 ‘不2’는 당연히 구문전체의 부사로 성립해야 하지만, ‘不2’는 구문전체의 부정과는 상관이 없고 뒤의 ‘去’의 범주만을 부정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정명령문에서 부정사가 능원동사 앞에 위치함으로써, 사건 자체가 아닌 화자의 의지인 ‘금지’에 의미초점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 (26) 你不必那么用功。
 (27) 你不可以跟我去。
 (28) 你们不许在这儿玩儿。
 (29) 你不应该着样骂我。

사실 기존 어법분석에서는 능원동사를 부사어와 유사한 기능으로 간주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의미표현에서 나타나는 심리동사와의 유사점으로

인해 능원동사의 서술성을 부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¹⁵⁾ 특히 李临定 (1983)은 ‘판단술어’¹⁶⁾가 비록 후술어보다 서술성은 약하지만, 긍정부정형식(×不×?)의 구성이나 ‘不(혹은 没)’의 부정 등의 두 가지 근거를 통해 조동사의 서술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구문의미의 핵심을 후술어(동사)에 서술중심을 둬으로써, 능원동사에 대한 완전한 서술성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是……的’형식과 같은 강조구문의 응용 또한 능원동사의 서술능력에 대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30) 你打他很不应该的。

(31) 不进大学他甘愿的。

(32) 他去是可以的。

사실 ‘是……的’구문에서 중심술어를 ‘是’로 간주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是……的’를 강조구문으로 처리하는 것은 ‘是’의 서술성보다는 강조용법으로 ‘어기성’을 띠기 때문이다. 이때는 능원동사 ‘应该’나 ‘甘愿’, ‘可以’ 등은 목적어 없이 실제적인 서술어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사실 능원동사가 술어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물음은 현재의 어법연구에 대한 인식이나 방법론으로는 단정을 하기는 힘들다. 다만 기존 어법분석에서 능원동사가 여전히 특수한 성분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점은 지속적인 연구과제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15) 李临定(1983)은 조동사를 후행하는 동작동사와 더불어 판단술어와 후술어의 결합이라 하였으나, 일단은 조동사의 술어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주15) 참조.

16) 李临定(1983)은 조동사를 「判谓」라 칭하고, 판단의 부정, 긍정을 표시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판단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구문 전체의 서술성은 여전히 「后谓语」인 동작행위동사에 두고 있기 때문에 ‘双谓’라는 이중의 술어를 가진 문장이 형성된다. 주15) 참조.

IV. 의미의 인지해석과 주관화

최근의 능원동사 연구경향에서 나타나는 서법, 양태, 情态 등 의미범주는 대체로 어법적 특징으로 보는 견해가 많으며, 인지어법에서도 ‘주관화’를 어법화의 일종으로 파악한다. 이것은 아마도 ‘양태’의 의미범주가 표현하는 ‘주관성’은 매우 추상적이어서 실사가 나타내는 구체적 개념의미의 성격을 갖추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대체로 최근의 연구에서 양태는 ‘명제의 진실성에 대한 가능성과 필연성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나타낸다고 규정하며, 인식양태와 의무양태로 구분하고 있다. 그 중 인식양태의 특징은 팔머(2001)의 분석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그는 발화자가 특정 상황의 출현가능성에 대해 판단인 추측, 추론, 가설의 세 가지를 영어의 조동사 may, must, will에 대비시켜 분석하고 있다.

- (33) a. John may be in his office.
 b. 约翰可能在办公室。
 c. John은 아마 사무실에 있는 것 같다.
- (34) a. John must be in his office.
 b. 约翰一定在办公室。
 c. John은 틀림없이 사무실에 있다.
- (35) a. John will be in his office.
 b. 约翰会在办公室。
 c. John은 사무실에 있을 것이다.

위의 예문에서 영어, 중국어, 한국어의 번역은 상호 간의 동일한 성분으로 번역되지는 않는 것은 영어의 능원동사가 지니는 주관성의 해석에 대한 사유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팔머(2001)의 주장에 따르면, 위의 예문(33a)에서 may는 발화자의 불확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지만, 예문(34a)의 must는 발화자가 John 사무실의 불이 켜져 있거나

집에 없는 것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예문(35a)은 발화자가 평상시 John에 대해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일상 정보, 예를 들면 출퇴근시간, 일에 미쳐있는 등에 근거하여 내린 판단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조동사의 활용은 세 가지 발화자의 판단에서 나타나는 확신의 강도는 서로 다르게 표현하는데 활용되는데, 그는 이런 판단을 각각 ‘가능한 결론’, ‘유일하게 가능한 결론’, ‘합리적인 결론’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말하는 ‘결론’을 화자의 ‘판단’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판단’에 대한 해석은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존재하는 화자의 심리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으며, ‘조동사’의 서술적 판단의 행위로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판단, 즉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차이점에 초점을 맞춘다면, ‘능원동사’의 어법기능은 부사어로서 동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달리 ‘판단하다’라는 자체의 서술적 기능으로 간주한다면, 능원동사의 어법기능은 심리동사와 유사한 서술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이러한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서 잡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판단동사’ ‘是’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자. 사실 중국어에서 논리분석의 대표동사인 계사(copula) ‘是’는 전형적인 논리분석에서는 ‘A=B’라는 논리적 판단은 객관적으로 규정되지만, 언어에서 ‘A=B’는 의사소통과정에서 나타나는 판단은 화자의 주관성으로 귀결될 수 있다. 만약 ‘是’가 표현하는 ‘판단’과 능원동사가 표현하는 ‘판단’의 주체가 모두 화자이며, 이 둘의 차이는 구문에서 체언목적어를 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을 뿐이다. 이것은 체언목적어를 취하지 못하는 심리동사 또한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능원동사 또한 서술어로 판단할 수 있는 개연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최근 중국어에서 ‘是’를 계사(copula)가 아닌 판단사(判断词)¹⁷⁾로 명명하고,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성립하지 않는 문장에는 ‘是’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는 아마도 ‘是’의 ‘판단’을 논리적 관계가 아닌 화자의

17) 논리구조에서 계사(copula)는 영어의 be동사에 해당하는데, 중국어에서는 ‘是’를 판단사 혹은 판단동사로 지칭하여 그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판단’이라는 각도에서 접근한 것으로 이해된다.¹⁸⁾

(36) 他是韩国人。

(37) 他不是工人。

만약 위의 예문을 논리명제로 해석하자면, 예문(36)의 ‘그는 한국인이다’라는 명제와 예문(37)의 ‘그는 노동자’라는 명제의 진리치가 반드시 참이어야만 비로소 이러한 전제가 성립하게 된다. 물론 의사소통과정에서 화자로부터 발화된 구문은 반드시 진리치가 참이 된다고 전제할 수 없으며, 판단 또한 반드시 객관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예문(36)의 ‘是’를 화자의 주관적 판단으로서 파악한다면, 명제의 진리치는 여전히 거짓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객관적인 명제의 틀이 형성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판단사 ‘是’가 표현하는 ‘판단’을 팔머(2001)의 해석방식을 적용하여 살펴보면, 화자가 이미 ‘그가 학생/노동자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고 있느냐, 아니면 그의 용모를 보고 주관적인 추측에 근거했느냐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또 예문(37)은 부정사 ‘不’를 통한 ‘부정적 판단’을 나타내는데, 그 ‘사건정보’가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청자는 ‘화자가 그 사실에 대한 부정적인 의도’를 표현하게 된다.

이상의 분석을 볼 때, 화자의 판단의 주체로 삼은 ‘是’의 기능에 대한 인지과정은 크게 두 가지 각도에서 관찰할 수 있다. 즉 하나는 화자가 사건정보(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론에 의한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이미 그 사건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확신하거나, 청자의 잘못된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18) 물론 ‘是’를 통해 드러나는 ‘판단’의 주체와 ‘조동사’를 통해 드러나는 판단의 주체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능원동사 또한 구체적 판단으로 파악한다면, 서술어적 특징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소망’, ‘바람’ 등 기대성 능원동사를 예를 들어 보면, 소위 ‘기대성’은 ‘가능’이나 ‘능력’의 의미영역보다 좀 더 화자의 주관적인 색채가 강하게 드러난다. 구문에서 표현되는 ‘심리정보’는 주어의 심리와 화자의 심리가 공존하여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능원동사가 표현하는 심리정보에는 화자의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것이 능원동사의 어휘성과 서술성에 결정적 제약을 가져왔으며, 또 화자의 의욕이나 의지에 대한 정도의 차이는 객관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수 없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대체로 ‘소망’을 나타내는 능원동사는 크게 ‘想’과 ‘要’, 그리고 ‘肯’과 ‘敢’이 서로 대비되어 나타난다. 먼저 일반적으로 ‘想’은 ‘要’보다 좀 약한 바람으로 상호 간에 정도상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다.

- (38) a. 你想看电影吗?
b. 你要看电影吗?
(39) a. 他很想看电影。
b. 他要看电影。
(40) a. 你肯做这样的事吗?
b. 你敢做这样的事吗?

예문(38)과 예문(39)에서 나타나는 ‘想’과 ‘要’의 인지과정의 차이는 ‘의지’의 강도에 의해서 나타나며, 화자의 청자에 대한 화행적 특징을 통해 드러난다. 사실 앞의 의미영역의 구별에서 나타나는 의미에 대한 분류는 진술문과 의문문, 그리고 명령문 등의 문형을 통해 드러나기도 하고, 주어의 인칭 차이에 의해서도 미묘한 의미차이가 드러난다. 즉 진술문의 주어가 바로 화자와 동일한 일인칭일 경우에는 화자의 의지와 주어의 의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차이점을 발견한 수 없다. 하지만, 주어가 화자가 아닐 경우, 능원동사의 의지표현은 어디를 지향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V. 결 어

지금까지의 구문분석은 ‘사건정보’가 나타내는 동작행위의 실제성을 근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능원동사는 구문술어가 될 수 없는 동작동사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능원동사를 단순히 ‘조(助)+동사(动词)’로서 기능어적 수식어로 취급한다면, 그 기능상으로는 부사어(状语)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또 ‘조동(助动)+사(词)’로 간주하여 조동사의 어법적 기능을 동사의 서술기능과 다른 ‘판단서술어’로 규정하더라도, 독립된 어법기능상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부사어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규명해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능원동사가 범주화되기까지의 과정을 되짚어 봄으로써, 능원동사의 과도적 특징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능원동사의 범주화 과정을 의미와 기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능원동사의 의미영역을 ‘가능성’과 ‘기대성’으로 귀납하여 보았다. 다시 인지어법의 어법화 과정을 통해 능원동사가 과연 실사에서 허사로 넘어가는 어법화를 거쳤는지, 아니면, 본래 허사로서의 어법기능에서 문장성분이 되는 실사로의 역기능을 통한 탈어법화를 가져왔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그 다음으로, 주관화 분석 또한 능원동사의 ‘판단’의미가 지니는 서술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다. 대개 부사어의 어법기능과 의미영역은 술어의 동작이나 성질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거나 외연범위를 제약하는 것에 거치는데 비해, 능원동사는 오히려 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 및 성질을 화자의 주관적 판단을 통해 제약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인지어법에 근거하여, 술어에 전치하는 수식어가 표현하는 의미가 화자의 주관성 표현이라는 ‘시간순서원칙’에 근거하여 능원동사의 주관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능원동사의 서술성을 주관

성의 각도에서 평가하고, 능원동사의 서술기능을 사건에 대한 화자의 태도와 사건의 실제성을 대비시켜 보았다. 왜냐하면, ‘화자정보’의 관점에서 보면, 구문에서 전달하는 사건정보는 능원동사가 주장하는 ‘화자정보에’ 지배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구문의미가 전달하는 정보가 과연 화자의 주관성인가, 아니면 단순한 객관적 사건정보를 제공하였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청자에 달려있다. 뿐만 아니라, 능원동사의 동일 어휘가 나타내는 다양한 의미의 차이는 화용적 차이이며, 화용적 측면에 치우친 주관성의 정도 차이는 화자의 의도가 청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강도까지 파악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각도에서 볼 때, 능원동사의 범주화와 어법기능에 대한 인지적 분석은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로, 지속적인 연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參考文獻>

- 姜先周, <양상으로 본 중국어 조동사의 내부적 차이>, 《중국어문학논집》 56, 2009.
- 高名凱, 《汉语语法论》, 北京, 科学出版社, 1957.
- 高名凱, 《高名凱语言学论文集》, 北京, 商务印书馆, 1990.
- 李临定, <判断“双谓句”>, 《语法研究和探索》 1, 北京大学出版社, 1983.
- 李临定, 《李临定自选集》, 河南教育出版社, 1994.
- 김동환, 《인지언어학과 의미》, 태학사, 2005.
- 김정필, <能愿动词의 「意味三位論」 분석>, 《중국학》 23, 2004.
- 박영록, <중국어 조동사의 범위와 기능의 문제>, 《중국어언어연구》 21, 2005.
- 안기섭·정성임, <현대한어 “능원동사(能愿动词)”의 성격에 관한 고찰>, 《중국어언어연구》 22, 2006.
- 민성아, <‘能’의 네 가지 의미영역>, 《中國語文學誌》 29, 2009.
- 민성아, 《助动词“能”和“会”的认知研究》, 상해사범대학 대외한어학원 박

- 사학위논문 2007, 5.
- 相原茂 등 저, 박귀진 등 역, 《중국어문법책》, 다락원, 2001.
- 李英哲 등, 《实用汉语参考语法》, 北京语言学院出版社, 1990.
- 呂叔湘, 《汉语语法分析问题》, 北京, 商务印书馆, 1979.
- 임지룡 등 옮김, 《인지언어학 키워드 사전》, 한국문화사, 2004.
- 정현미, <現代漢語 能願動詞 「能」, 「會」, 「可以」 意味 比較>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장애경, 《現代 中國語 助動詞의 範疇 設定 研究》 成均館大學校 教育大
學院 석사논문, 2002.
- 주취란, <중국어 “가능의미 능원동사”의 의미적, 화용적 기능과 교육>, 《中
國學報》 53, 2006.
- 최재영, <중국어 조동사 연구 (1) -현대중국어 조동사의 특징, 범위, 하위
분류를 중심으로->, 《中國研究》 43, 2008.
- 천호재, 《인식 조동사 구문의 보편적 특징》, 한국문화사, 2009.
- 许和平, 《汉语“情态动词”的语义和句法初探》, 《第三届国际汉语教学讨论
会论文选》, 1991.
- Günter Radden · René Dirven 지음, 임지룡 · 윤희수 옮김, 《인지문법론》,
박이정. 2009.

<中文提要>

本文是对于汉语能愿动词的范畴化过程以认知理论来考察的。能愿动词的范畴化到现在还没有完成的。本文先要把能愿动词的意义场区分为'可能性'和'期待性'的两个领域, 现存多样的意义范畴归纳为两个倾向性范畴。第一、能愿动词的范畴化是以词性和功能的角度来观察的。其实, 能愿动词的意义领域有'可能、职责、要求、意志、当然、必然、允许'等多样的意义范畴。本文从'发话者的心理情报'角度把所有的意义范畴归纳为'可能性'和'期待性'的两

个领域。第二、从语法功能分析的角度来看, 能愿动词的语法化和一般语法化成分有些差别。到现在的意义研究情况来看, '能'的意义大略分为三个或者四个范畴。这样的意义分析的标准不在于词汇方面, 而是以语用功能的来观察的。第三、主观化这个章节和判断动词'是'的对比来观察能愿动词的判断性。这个判断性可以由认知过程来观察而处理的。

주제어 : 能愿动词, 助动词, 情态动词, 认知语法, 认知过程

